

# 동향과 분석

김정은 체제의 행정책과 우리의 대응방향

신재현

김정은 권력승계와 대내외 정책의 추이  
(2009~14)

박형중

시진핑 시기 새로운 한중관계의 진화: '연미협  
중' 전략 추진을 제안하면서

김흥규

# 시진핑 시기 새로운 한중관계의 진화: ‘연미협중’ 전략 추진을 제안하면서

김홍규 |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 hkim63@gmail.com

## 1. 시진핑 시기 중국의 새로운 외교

본고는 지난 9월 26일 개최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China Policy Institute: CPI) 개소식 겸 제1차 아주 한중 국제학술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진핑 시기의 새로운 한중관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였다.<sup>3)</sup>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방향으로 ‘연미협중(聯美協中)’을 제안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국 참석자들의 면면이었다. 우선 ‘시진핑 시기 중국의 새로운 외교’란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는 진찬룡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진창이 연변대 조선한국센터 소장, 왕이웨이 인민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이 참여하였다. 진찬룡 부원장은 ‘시진핑의 외교정책과 아시아 신안보관’, 진창이 소장은 ‘중국 주변국외교와 한반도문제’, 왕이웨이 소장은 ‘한중동맹론 —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진찬룡 부원장은 후진타오 시기 중국 외교의 실무 수장이었던 다이빙귀 전 국무위원이 중시한 국제정치학자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도 우리의 청와대 격인 중난하이(中南海)에서 가장 많이 찾는 국제정치학자로, 중국 외교의 특징을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학자이다. 진창이 소장은 조선족 출신으로, 그의 형인 북경대 진징이 교수와 더불어 중국 내 한반도문제 최고의 전문가에 속한다. 특히 연변대 조선한국센터는 중국 교육부로부터 한반도문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북한과 접하고 있는 두만강 접경지대에 있다 보니 북한과 교류가 빈번하고 북한의 내부 사정에 어느 누구보다

3) 아주대 국제학술회의에 대한 자료는 [www.ajoucpicr.com](http://www.ajoucpicr.com)를 참조하라.

정통한 합리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다. 왕이웨이 교수의 경력은 특이하다. 그는 상해의 명문대인 푸단대에서 처음 교편을 잡았으며, 다재다능하고 재기발랄하다. 그의 재능을 높이 산 원자바오 총리에게 발탁되어 중국 민간학자로는 드물게 벨기에에 외교관으로서 파견되어 3년을 근무하고 돌아왔다. 본래는 중국의 전통적 문화 소양을 깊이 갖춘 중국적인 국제정치 연구자로 명성이 있었지만, 유럽 전문가가 되어 중국에 돌아왔다. 너무 빠른 고속 승진에 주변의 질시도 많이 받으면서, 최근 북경의 인민대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그는 여전히 중국 지도자들의 중시를 받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유럽뿐만이 아니라 국제정치 전반을 다루면서 자주 대중매체에 노출되고 있다.

## 1. 한중동맹론

제1세션의 하이라이트는 최근 중국 내 내부 토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중동맹론'의 등장이었다. 왕이웨이 소장은 중국 내에서 정치현실주의의 대표주자이자 '한중동맹론'의 제창자인 칭화대 옌쉐통 교수와 더불어 대표적인 '한중동맹론' 옹호자로 알려져 있다. 왕이웨이 소장은 한미동맹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이 형성하고 있는 동맹관계는 그 강도 면에서 미국과 동아시아 내 동맹국들 간의 관계 중 가장 약한 축에 속한다고 분석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이해를 반영하면서 한중 간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여 점차 한미동맹체제를 약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왕 소장은 한중관계가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북중이 체결하고 있는 종류의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여 전략적 내포범위를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왕 소장의 주장은 중국이 북한에 편중된 대한반도 정책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며 남북한 간에 균형을 취하면서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진핑 시대에 새로이 강조되고 있는 "균형론적인 대한반도 전략" 사고를 이론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는 중국 내에서 한국이 선린우호협력조약의 체결대상 국가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지를 들고 있다. 첫째, 한반도는 오랜 역사를 통틀어 중국의 안전보장 대상이었다. 그리고 한중은 경제적, 문화적, 지리적 위치 때문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둘째, 한중 선린우호조약의 체결은 중국이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으로부터 받는 구속을 상쇄시켜 줄 것이다.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부담을 감소시켜 주고, 이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면서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도 고양시킬 수 있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동맹체제는 약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과연 미국이 자신의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점차 그 주둔의 정당성을 국내외적으로 잃어가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여,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점차 미국의 동맹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왕이웨이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한중 선린우호협력조약은 반드시 한미동맹과 배치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 기본내용은 한중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한반도(북한)에서의 핵무기 폐기, 상호 안보 확보, 한반도 통일의 삼위일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북한과 같이 전략적인 반열에 놓으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동시에 확보케 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통일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한중 선린우호협력조약의 체결은 결국 중국의 대주변국 외교의 전략적 포석을 완성하게 되는 것으로 그는 분석하였다. 동시에 미국의 동북아동맹체제를 동요케 하고 미국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킬 정당성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이 중국에 가하고 있는 전략적 압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왕 소장은 결론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새로운 형태의 조약관계를 체결하여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중국은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미·중 강국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확실히 지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중 선린우호협력조약의 체결은 한중관계의 발전에 있어 거부할 수 없는 추세이며, 한반도에서 혼란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의 주변국들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완성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 2. 새로운 대외정책 구상

진찬룡 부원장은 시진핑 시기,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지위가 격상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후진타오 시기까지만 해도 외교가 경제발전이라는 상위의 목표를 위한 종속적 역할로 치부된 데 비해, 이제는 ‘중국의 꿈’을 이루는 데 보다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시진핑의 외교는 전략과 책략을 구분하고 있는데, 전략적 측면에서는 덩샤오핑의 도광양희(韜光養晦)를 고수하고 있지만, 동시에 적극적인 유소작위(有所作為)를 책략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진찬룡 부원장의 의견에 따르면, 시진핑 시기의 책략의 형태는 우선 외교정책 결정에 관한 권력을 집중시키고, 둘째 기존의 전통으로 고수해 오던 ‘수동적 외교’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외교로 변화시키며, 셋째 외교에 있어서 국가의 핵심 이익은 수호할 것이라는 마지노선을 긋고 있다. 이러한 책략을 바탕으로 한 구체화된 중국 외교정책의 특성은 첫째 세계 3대 강국, 즉 미국, 러시아, EU와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둘째 중국 외교 전체에서 주변국외교의 위치를 격상시키며, 셋째 중국이 국제적인 공공재를 제공하고 해외에 존재하는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국제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시아의 안보 이슈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위한 새로운 틀을 구현하고자 '아시아 신안보체제의 수립'을 주창하였다. 아시아 신안보체제의 기초는 중국의 '화의 문화(和文化)'이며, 이것은 서방의 자유주의적 국제관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화(和)'의 문화는 아시아 안보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협력적 안보 틀을 다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 신안보체제의 구축을 주장함과 동시에 '공동안보', '종합안보', '협력안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안보'를 제시하였는데 그 함의는 다분히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담지하고 있다. '공동의 안보'는 안보가 보편적으로 수호되어야 하며, 자국의 절대적인 안보 보장을 위해 타국의 안보를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적 안보'는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모두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협력적 안보'는 대화를 통해서 각 국가가 지역의 안보를 수호하는 것이며, 민감성이 낮은 이슈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현하여 협력의 방식에 있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평화를 일구어 나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안보'는 발전과 안보를 모두 중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아시아 각국에 있어 발전의 최대의 안보 이슈인 동시에 아시아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라고 분석하였다. 진 부원장의 주장은 최근 시진핑 시기의 외교가 외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세적인 것이 아니며, 그 근저에는 안정과 평화를 중시하고, 신중함을 갖추라는 덩샤오핑의 대외정책이 연속성을 띠면서 면면히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 3. 중국의 새로운 동북아전략과 한반도

진창이 소장은 중국의 동북아 지역 발전전략과 주변국외교 기조에 대해 설명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주변국외교의 기본방침, 즉 “이웃국가들과 잘 지내고 이웃국가를 동반자로 하여 선린(善隣), 안린(安隣), 부린(富隣)을 견지해 나가며,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의 이념을 뚜렷하게 구현해 나가는 것”은 중국이 협력·공영하는 주변국외교정책의 기조라고 정리하였다. 중국의 주변국외교는 “두 개의 100년 목표: 2021년(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까

지 전반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이루고, 2049년(중국 건국 100주년)까지 현대화 국가를 실현”하는 기반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외교기조는 두 개의 10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변국가와의 전면적 협력의 기초 위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동북아시아는 중국이 전략목표를 실현시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동북아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국제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진 소장은 중국이 이러한 동북아전략을 실행해 나가는 데에서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장애물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문제, 각국의 전략적 이해들 간 우선순위 갈등 및 충돌, 그리고 미국이 자국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억제하려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전략’이다. 중국이 동북아전략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 중에 봉착할 수 있는 난관은 대부분 한반도문제에서 유래되며, 한반도문제는 위의 세 가지 장애요인을 모두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정리하였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반도문제는 단계적으로 전략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으며, 이 전략은 우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여 동북아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것이며, 다음으로 동북아 각 국가들 사이에서 국제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진창이 소장은 중국의 동북아 지역 전략의 관점에서 불리한 전략적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대상은 한국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이 미국 일변도 외교정책을 선택한다면 동북아 지역에는 새로운 냉전구조가 나타날 것이고, 반대로 한국이 미·중 양국과 다원적인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선택한다면 동북아에서 신냉전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며 동시에 동북아에 안정적인 중심축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현재 동북아에서 미·중, 중·일, 미·러, 중·러, 한중 관계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 국가들의 전략을 전면협력으로 전환케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진창이 소장의 주장이다. 정확한 전략적 접근은 역내 쟁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그 시작은 한반도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 II. 시진핑 시기 한반도 정세와 한중협력

제2세션은 시진핑 시기 한반도 정세와 한중협력 문제를 다루었다. 이 세션에 참가한 중국 측 참가자들을 살펴보자면, 우선 왕이성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부 주임을 주목할 수 있다. 그는 우리 한국의 준장에 해당하는 현역 장군으로 중국 군부의

한반도 관련 최고위직에 있으면서 동시에 최고의 전문가이다. 인민해방군의 현역 고위직 인사가 국내 사립대학의 연구소 창립식에 참석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는 그가 전하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왕진성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로 2013년 사회과학원 연례정세보고서에서 한반도 부분을 집필한 신예 학자이다.<sup>4)</sup>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이 북중관계를 동맹관계로 착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 이미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중앙당교에서 북경 내 유능한 신진 국제정치학자들을 모아 조직한 '청년사론'의 간사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인민대 전략연구 센터 부주임인 청샤오허 교수는 중국 외교부의 1950~60년대 한반도 관련 대외비밀문서를 정독한 유일한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중국 외교부는 청샤오허 교수가 열람한 이후 다시 이 자료들을 대외비공개로 전환해 버렸다.

## 1. 사드방어체계 한국 내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

왕이성 주임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불안정하며, 이를 초래한 원인들을 쉽사리 제거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실제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낮으며, 남북관계는 후퇴하였고, 북한 정권은 여전히 안정상태를 유지하면서 핵개발을 포기할 개연성이 거의 없어, 또 다른 남북 간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하지만 한반도의 긴장 국면은 완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를 위해 한중 양국 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안보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한미 군사동맹 문제, 안보 측면에서의 상호 신뢰 부족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왕이성 주임이 한중 양국에 제안하는 바는 전략적 소통의 강화, 경제적 협력의 확대, 인문적 교류의 강화, 아시아 지역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그리고 군사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신뢰 제고이다.

하지만 이번 아주대 한중 국제학술회의의 하이라이트는 왕이성 주임이 강력히 제기한, 한반도 내 사드방어체계 도입에 대한 중국 군부 측의 우려였다. 왕 주임은 중국 내에서 한국에 미군의 사드방어체계가 도입되는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특히 강조하였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이 문제로 토론이 가열되고 있으며, 이 문제로 인하여 그간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해 오던 중국 외교부 측이 대단히 궁한 처지에 몰려 있다는 상황을 전하였다. 이는 필자가 지난 달 중국에서 전략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군과의 접촉에서 느낀 분위기와 유사하였고, 왕진성 교수 역시 강력한 동의를 표하였다.

4) 이 글은 李向阳 主编, 『亚太地区发展报告』,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4의 제15장을 보시오.

중국 측은 사드방어체계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북한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인 역할이 강한 체계라고 인식하고 있다. 만일 이 방어체계가 한국 내에 도입된다면 중국의 연안지역에 있는 주요 군사시설들을 다 탐지할 수 있는 역량을 미국이 갖추게 되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 단정하였다. 한국 측은 어려운 입장은 이해하지만, 한국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핵심적인 이해를 인정해 주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 측 입장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의도와 역할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며, 한중관계 악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박근혜정부 시기 들어 우호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가 주요한 좌절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동시에 군사적으로는 일단 유사시 중국군의 전략적 대응의 첫 타격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외교적 대응을 묻는 필자에게, 사건임을 들어 동일한 입장에 처해 있는 러시아와 공조하여 한국을 압박할 개연성이 크고 동시에 북한 카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동북아 군사적 긴장의 격화, 새로운 냉전구조의 도래, 북한의 전략적 위상 제고와 도발에 대한 견제 약화를 초래하는 등 중국 역시 실상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케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 사안에 대해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너무 간단히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거나 안이하게 대응하지 말아 줄 것을 촉구하였다.

## 2. 시진핑 시기 북중관계

청샤오허 부주임은 북중관계에 확실히 일정한 변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북중관계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양국 간 무역이 아직까지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이 서로 간에 존재하는 불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가 없고, 양국의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는 계속 양국 간의 우호관계 강화를 주문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도 변화가 아직은 북한과 중국 양국에 우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청샤오허 부주임이 분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이 북중관계에 끼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북중관계를 정상국가화시키려는 중국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둘째 중국과 한국의 고위급 지도자들 간 빈번하고 제도화된 방문을 통해 북한 지도자들이 보다 순응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며, 셋째 한중관계 강화의 반대급부로 북중관계



는 크게 악화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중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데 전략적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덧붙여 청 부주임은 시진핑 시기 들어 북중 간 전통적 우호관계는 긍정적인 형태로 계승되지 못하고 있으며, 양국 간 협력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북중관계의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분석하였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카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며, 북중관계를 잘못 다룬다면 북한의 미래에도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북한은 북중관계 운영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과 이익을 신중하게 계산해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청 부주임의 이러한 견해는 심상찮은 북중관계의 현실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북중관계는 최근 북한의 최고지도자급 3인이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전격적으로 방한한 것과 어떤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 3. 중국의 동북아전략과 한중협력의 의미

왕권성 교수는 중국의 주변지역 안보에 있어서 동북아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중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인구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다음으로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의 강대국 간 이익이 이 지역에서 교차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왕권성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평화 구축과 안정적 환경 조성이며, 그 전략은 다소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 이유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가장 크며, 중·일 경쟁이 이미 구조적 갈등 국면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세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극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요 고려대상이다. 그러나 중국은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에서 “안정적 국면의 유지” 전략에서 “안정적 국면의 경영”으로 전략을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제도적 안보 메커니즘의 구축, 다층적 소통창구 건설, 경제 등의 영역에 있어 공통의 이익 형성, 상호 타협 촉진, 안보이익의 충돌을 관리할 기제 구축을 제시하였다.

왕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제도와 다층적 소통창구를 건설하는 데에 미진한 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은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다수 참석해 왔던 공식 조직 및 비공식 조직을 더욱 더 중시해야 하고, 가능하면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또한 국가 싱크탱크 간 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중 간 가장 취약한 분야인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 이유로 첫째, 양국 간 안보협력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에 필요한 중요한 단계이다. 둘째, 한중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한반도 정세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동북아 안보의 전체 국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지역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중 안보협력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 III. 정책 제언

#### 1.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에서 ‘연미협중(聯美協中)’ 전략의 병행 추진으로 전환

박근혜정부 초에 강조했던 연미화중 전략은 역내 세력 전이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지만 중국의 대미정책은 여전히 온건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었다. 한국은 상승하는 전략적 입지를 활용하여 중국과의 갈등 영역은 최대한 과감히 축소시키는 구동축이(救同縮異) 방안을 추구할 것을 제시한 것이다.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미정책은 미국과의 전략적 갈등이 강화되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략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진핑 시기 당분간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대단히 중시할 것이다. 한국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중국의 ‘구동축이’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중국이 새로이 시도하는 유라시아 국제체제 형성에 적극 개입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담보하는 적극적인 대중 외교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미·중 관계에 있어 “전략적 갈등과 협력”의 양면 중 ‘협력’의 부문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중국과 공동의 이익과 비전을 조정해 가면서 공동행동을 모색하는 ‘연미협중’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미·중과 공동으로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글로벌 중견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전략방향을 제시한다. 한중동맹론은 현실성이 부족하나,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한중관계 격상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동시에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중견국가 외교협의체의 형성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 “보편적 개방주의” 원칙을 고수해 미·중 관계 안정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 2. 중국과 대(對)북핵 협력체제 구축 과감히 추진

필자가 제안한 연미협중 전략은 중국 대북전략의 연속성을 전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 들어 중국의 대북전략은 중국의 정체성 변화에 입각한 새로운 변화가 근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새로이 제안하고 있는 연미협중 전략은 새로이 변화하는 중국의 대북관 및 정책을 이해하고, 기존의 중국 배제 혹은 중립화 전략에서 벗어나 보다 과감하게 중국과 대(對)북핵 공동대응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과의 공조를 북한 비핵화를 추진할 동력으로 활용하면서, 미국과의 삼자협력을 실현시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동이익과 전략적 비전을 조율하면서 한반도 위기의 관리 및 극복을 실현하기 위한 대중전략 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사드방어체제의 한국 내 도입과 같은 사안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한 민감성을 이해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예상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는 한미관계이면서도 미·중 및 미·러 관계의 영역에도 속하기 때문에 이들 강대국들 간에 조정할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중국 역시 다시금 북한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다.<sup>5)</sup>

5) 류홍채이 주북한 중국 대사가 한미 전작권 협상 타결소식이 알려진 바로 다음 날 지난 10여 년간 공식석상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북중 혈맹'이란 개념을 다시 거론하고 나왔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27/2014102700644.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27/2014102700644.html), 접속일자: 2014. 10. 25).